

일본 가계소비지출: 6 월 실질소비 7 개월째 감소, 소득 늘어도 소비 대신 저축 확대

2026.08.07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일본 6 월 가계 소비지출은 시장이 주목할 만한 신호를 냈다. 실질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-3.3%로 7 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간 가운데, 그동안 물가 상승분만큼 늘어나던 명목 지출액마저 이번엔 -1.5%로 꺾였다. 5 월까지는 명목 +1.3%·실질 -0.4%로 '가격만 오르고 실제 구매 물량만 줄어드는' 구도였는데, 6 월엔 물가가 실질을 여전히 1.8%포인트 정도 꺾아먹는 와중에 지출 금액 자체까지 줄어드는 상황으로 한 단계 나빠진 셈이다.

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'소비 붕괴'로 읽는 것은 과장이다.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-6.4%라는 큰 낙폭이 나왔지만, 이는 전월 +3.7% 급등에 대한 되돌림 성격이 크고, 최근 3 개월 평균 감소율은 -1.4%로 전월(-1.3%)과 거의 같다. 즉 추세 자체는 급락이 아니라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. 항목별로 보면 교통·통신(-0.87%포인트)과 기타 소비지출(-0.95%포인트)이 감소를 주도했고, 특히 식료품은 명목 지출이 +0.6% 늘었는데도 실질로는 -2.5% 줄어 물가가 필수 소비까지 꺾아먹는 전형적인 구매력 압박 사례로 확인된다. 반면 주거(5 개월 연속 실질 증가)와 의료·보건(13 개월 연속 실질 증가)은 여전히 견조해 감소가 전 부문에 걸친 것은 아니다. 눈에 띄는 대목은 상여(보너스) 지급월임에도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. 세대주 실수입은 실질 +1.6%, 가처분소득은 실질 +2.5% 늘었지만,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비는 -5.8%에 그쳤고, 평균소비성향(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율)은 계절조정 기준 전월보다 3.0%포인트 낮아졌다. 소득이 늘어난 만큼 쓰지 않고 저축으로 돌린 정도가 커졌다는 뜻이다.

정책적 함의는 제한적이지만 방향은 뚜렷하다. 일본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1.0%까지 올린 인상 국면에 있고, 이번 지표가 그 흐름을 되돌릴 근거는 아니다. 다만 일본은행이 추가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온 '임금 상승이 물가를 거쳐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' 가운데 소비 파트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. 즉 이번 결과는 다음 인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강화하기보다는 그 논리의 약한 고리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. 다만 일본은행의 인상 판단은 소비 실적보다 기조적 물가지표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, 이번 지표만으로 정책 경로가 바뀔 무게는 아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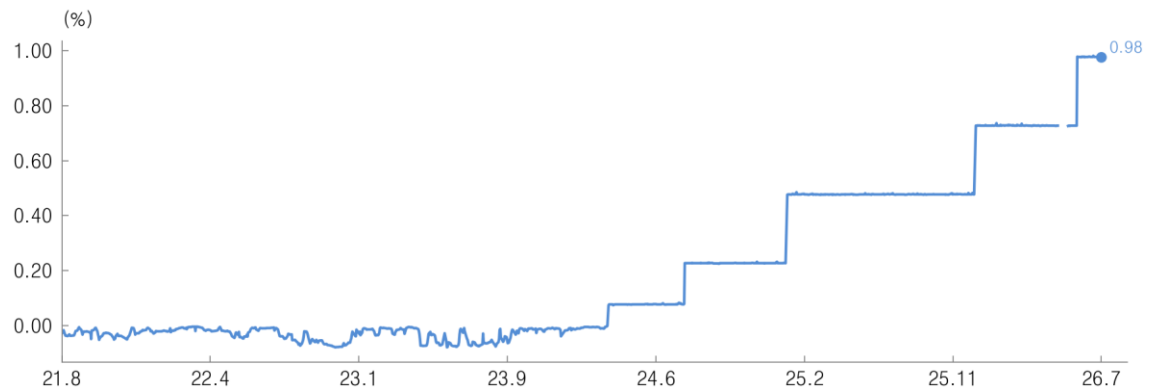
앞으로는 7 월분에서 이번 급락의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, 그리고 전기·가스 요금 보조금 정책 변화가 광열·수도 지출 감소(-7.1%)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이 명확해진다. 소비성향 하락이 일시적 방어 심리인지 구조적 저축 전환인지도 다음 달 자료로 확인이 필요하다.

과거와 비교 (같은 분류 최근 분석)	
발행일	핵심 메시지
2026-08-07 (이번)	일본 2 인 이상 가구 소비지출(가계조사)이 6 월 실질 기준 전년동월비 -3.3%를 기록해 7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. 그동안은 명목이 플러스를 유지한 채 물가만 실질을 깎아먹는 구도였는데, 6 월에는 명목도 -1.5%로 전월 +1.3%에서 꺾이면서 물가에 의한 잠식 위에 지출 금액 자체의 감소까지 겹쳤다. 상여(보너스)가 지급되는 달임에도 소득 개선이
2026-07-07	임금 소폭 증가에도 6 개월 연속 실질 소비 악화, 자동차 구매 -25%·평균소비성향 -1.5%p 로 BOJ 의 "임금-물가-소비 선순환" 정책 추세 재확인 — 명목 +1.3%는 순전히 물가, 실제 수요는 구조적 위축.
2026-06-05	임금 +2.3% 증가에도 실질 소비 -0.5% 5 개월째 악화; 명목 +1.0%는 순전히 인플레이 기여이며, BOJ 의 임금-물가-소비 선순환이 최종 단계에서 정책—계절조정 +1.6%와 자동차·가전 반등은 기업설비투자 사이클의 일시적 밀어올림으로 해석되는 중 구조적 수요 악화 확인.

JP 가계소비지출 항목별 실질 증감 (2026 년 6 월, 전년 동월 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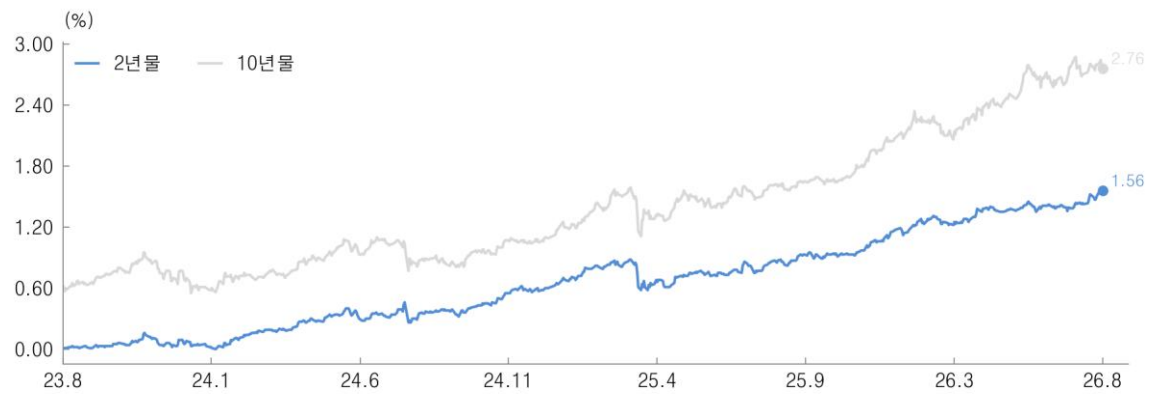
항목	실질 증감률	실질 기여도	비고
소비지출 총계	-3.3%	-	명목 -1.5%, 7 개월 연속 실질 감소
기타 소비지출	-6.7%	-0.95%p	명목 -4.9%, 2 개월 만의 실질 감소
교통·통신	-5.7%	-0.87%p	2 개월 연속 감소(항공운임·취발유 부진)
식료	-2.5%	-0.77%p	명목은 +0.6%, 실질 수량은 감소
광열·수도	-7.1%	-0.52%p	명목·실질 동일, 4 개월 연속 감소
주거	+3.6%	+0.25%p	5 개월 연속 실질 증가(설비수선·유지)
교육	+20.6%	+0.50%p	명목 +13.4%보다 커, 2 개월 연속 증가
보건의료	+1.4%	+0.08%p	13 개월 연속 실질 증가

일본 무담보콜 익일물 금리 5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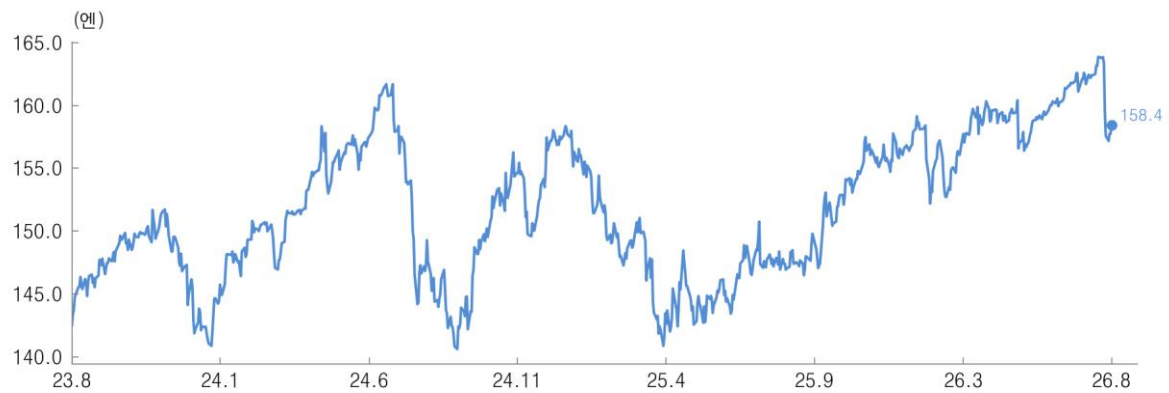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은행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일본 국채금리 (2년·10년) 3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엔/달러 환율 3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